

2016년 12월 14일,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, 송정희 조사.
한신화(여, 1921년생, 표선면 가시리)

[제보자] 옛날에 저 풋버랭이 풋버랭이 알아져? 몰르죽.

[조사자] 예. 풋버랭이.

[제보자] 풀리도 엇곡 헌 거. 그거 옛날에 하늘항제가 막 부젠디, 놈 고린 장 줘 부난 장 이녁은 돈 장 먹곡 이제 빌레 간 건 고린 장을 줘. 고린 장 줘 부난에 하늘항 제 딸이 풀리도 엇언네 풋버랭이로 내리와 빚어.

[조사자] 고린 장?

[제보자] 고린 장. 굿인 거게.

[조사자] 고린 거. 놈을 주난?

[제보자] 고린 걸 놈을 주난 지넨 돈 장 먹곡. 경 허난. 딸애길 하늘항제 딸애길 풋베랭이 로 환승헤연 풀랭이 잇지. 풀랭이 돈져네 하늘나라 보내 빚어.

[조사자] 하늘에 보내 버런?

[제보자] 응.

[조사자] 내려온 게 아니고?

[제보자] 응. 이 하늘나라에 내려와 빚어. 경허난 부제가이 놈을 좋을 걸 안 줘. 굿인 걸 줘 부난 쉘 짓언. 딸은 영 이제 풋베랭이로 환승헤연 풀리 돈전 땅아래 내려와 빚어. 엇인 사름을 좋은 걸 줘야 헐 건디 나쁜 고린 장을 준 거라. 그런 말이 잇어.

• 핵심어 : 풋버랭이, 하늘항제, 부자, 고린 장, 돈 장, 딸